

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킨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7. 19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킨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황국주 의원 등 6명(김장관, 박정환, 정창근, 도하석, 임미연)
- 발의일자: 2023. 7. 7.(금)
- 회부일자: 2023. 7. 7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3. 7. 19.)

2. 제정이유

- 「스토킨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스토킨을 예방하고,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달서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스토킨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지원사업을 명시하고,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스토킨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바. 스토킨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(안 제8조)
- 사. 스토킨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-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

○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
○ 입법예고(2023. 7. 7. ~ 2023. 7. 17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○ 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스톱킹 발생을 예방하고,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달서구의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스톱킹범죄는 2018년 6월 1일 별도 코드가 신설된 이후 2018년 2,767건, 2019년 5,468건, 2020년 4,515건이었으나, 2021년 1만 4,509건, 2022년 2만 9,56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.

○ 이에 따라 스톱킹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1일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었으며,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2023년 1월 17일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2023년 7월 18일 시행되고 있음.

○ 일반적으로 스톱킹범죄는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,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어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이 필요함.

○ 이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스톱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 내 스톱킹 발생을 예방하고,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·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

-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와 6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 정책 시행의 필요성과 실효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